



'빛의 숨결' 展 演 在佛 화가

## 방혜자

### ▽ 방혜자 화백은?

1961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도블, 파리 국립미술학교와 파리 국립응용미술학교 등지에서 벽화와 색유리화 등 수업을 받았다. 파리 헤이터17 공방에서 판화를 연구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작품활동을 시작한 이래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110여 차례에 걸쳐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다. 특히 내면의 세계를 '빛'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지에서 주목되는 현대미술 화가로 평가받았다. 특유의 빛 그림으로 프랑스 파리 길상사와 평창동 보각사의 후불탱화를 조성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기도 광주 영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영은 2005 레지던시' 전에서 방혜자 화백이 자신의 작품 '빛의 숨결'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방혜자 화백은 천연재료로 만든 물성(物性)의 자체 에너지가 빛으로 환원되기를 바라며 수만 번의 붓질을 이어간다.

## 빛으로 쓰는 '경전' ... "우주에 회향"

### 수십년간 '빛' 화두삼아 작업

제석천의 궁전을 장엄하고 있는 그물, 제망(帝網). 그 그물의 가로와 세로 줄이 만나는 그 물결에는 영롱하고 투명한 보배 구슬이 한 개씩 달려 있다. 그 각각의 구슬들은 서로를 비추어 아름다운 빛을 뿜어낸다. 구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극치를 이룬다.

제망의 빛이 형상화된 그림을 만났다. 경기도 광주 영은미술관(5월 8일)에서 열리고 있는 방혜자(69) 화백의 '빛의 숨결' 전. 방 화백의 30여 그림에서는 잘해(袈裟·땅과 바다)를 덮고 있는 부처님의 빛, 즉 '제망할해'를 오롯이 느낄 수 있었다.

프랑스 길상사 후불탱화로 안치됐다. 그의 작품에 담긴 화엄사상의 신비를 풀 수 있을 것 같았다. 빛으로 형상화된 부처의 찬란함을 화폭에 담은 방혜자, 그는 누구일까.

"지상에 내려온 작은 별" 같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을 발견하고 놀라서 급히 달려온 작은 별이랄까.

소설가 최인호씨의 묘사가 맞는지도 모른다. 150센티가 조금 넘을 듯한 작은 키에 일흔의 나이로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성성한 머리카락을 가진 방 화백은, 세상의 모든 색이 모두 묻은 듯한 하얀 작업복을 입고 서서 끊임없이 빛과 별과 우주를 이야기했다.

우리가 보는 별빛은 몇 백 광년 전에 우리를 향해 출발한 빛. 그 별빛이 긴 세월 동안 한 곳만을 향해 내달렸듯, 그는 오직 '빛'의 구현을 위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색채의 옷을 입고 붓이 되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빛으로부터 왔고, 빛에서 살고, 빛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빛은 생명의 원초적

인 에너지죠. 그러한 빛의 기운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입자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빛을 매개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는 직접 개어 만든 천연 염료로 캔버스 위에 빛을 뿜었다. 어떤 인위적인 상(象)은 필요치 않았다. 자연의 재료로 만든 물성(物性)의 자체 에너지가 빛으로 환원되기만을 다독일 뿐이었다.

### 관람자 마음에 빛 심을수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는 수백 수천 번의 붓질이 이어져야 했다. 그는 흔적이 남을 듯 말 듯한 옅은 색을 붓에 묻혀 생각도 있고 두드렸다. 붓을 쥐는 것은 손이건 발이건 상관없었다. 작가는 물성이 본디 빛으로 화하는 것을 돕는 매개체일 뿐이었다. 그래서 관람자의 마음에 빛을 심을 수 있다면 그만이었다. 하찮은 가루와 액체 등의 물성이 자신을 통해 환희로운 세계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작업에 임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는 이들은 한결같이 "마치 경전을 읽는 것 같다"며 입을 모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작은 빛 한줄기, 작은 빛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도와야 합니다. 예술가의 삶은 회향의 삶입니다."

이제는 빛과 방 화백의 경계가 무의미하다. 이런 그를 두고 많은 이들이 빛과의 인연을 궁금해 한다. 그러나 그는 그림은 마음에서 온다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다며 모든 작업은 마음이 이끌었을 뿐이라고 일축한다.

### 인위적 그림 거부, 내면 움직임여야

그 마음은 경멸의 집약체다. 시냇물 속 조약돌에 비친 햇빛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유년기 경험, 프랑스 프로

랑스 지방의 황토 채석장에서 목격했던 색채의 진동 등이 저도 모르는 사이 '빛의 화두'를 쥐어주었다. 전쟁 중에 얻은 병으로 숨이 턱에 닿아 활짝이던 시절 수석사 노스님에게서 전해들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깊은 얘기, 탄허스님을 통해 얻은 윤회론 전반에 대한 확철하고 명료한 가르침 역시 그의 바탕이 됐다.

그 뿐만 아니다. 우리 몸 안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 세포가 열리고 닫히는 움직임까지도 모두 캐어내고자 한 의지가 있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내면의 움직임이 일어나 작업이 시작하게 만들 때까지 기다리고 '질로 되어지는' 작품을 날이 새도록 붙잡고 보든다.

그는 작업실 밖에서도 빛의 에너지를 오롯이 체감한다. 한 획 한 획 살아있는 생명과 같은 붓글씨를 하루도 거르지 않을 뿐더러, 그림을 그리면서 화폭 위에 담을 수 없는 기운은 글씨를 빌어 시로 옮긴다. 매일 아침 기공 수련으로 우주의 에너지를 여과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주요한 일과다. "어떤 수련이든 그것은 인간의 의식을 깨어나게 합니다. 기공은 도(道)의 춤이자 우리 몸이 공간 안에서 쓰는 붓글씨입니다."

침수를 요양에 둔 방 화백이지만 빛의 숨결을 전하려고 하는 그의 노력은 끝이 없다.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하루 12시간을 붓을 쥐는 것은 물론이고, 프랑스 한인문화원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붓글씨 무료강좌를 펼치기도 한다. 그에겐 자신의 작업과 대중강좌가 둘이 아니다. 에너지와 빛, 색채가 하나로 결합하는 상태에 이르러 모든 것을 우주에 회향하겠다는 것이 방혜자 화백의 지지치 않는 바람이다.

글=강신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 낙산사(落山寺)를 사랑하는 종도(宗徒)와 국민여러분에게 사죄(謝罪)를 올립니다

14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낙산사는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는 기도도량이며, 관동팔경 중의 으뜸이었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사랑하는 역사와 문화의 도량입니다.

불의의 화재로 도량의 모든 곳을 소실하는 재난 속에 종도와 국민이 보여준 관심과 격려는 낙산사가 우리 국토에 있어 어떤 비중이었으며 수행처인지를 되돌아 보게 했습니다. 모든 허물과 책임의 아픔을 부처님께 참회하면서도 먼 옛날 의상스님의 원력처럼, 역대조사님의 발원처럼 이웃과 중생의 의지처럼 거듭날 수 있음을 슬픔 속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종도와 국민여러분!  
천제지변의 재앙이었기에 누구의 허물도 아니었으며 그 속에서도 원통보전의 관세음보살님과 보타전의 관세음보살님, 흥련암의 관세음보살

님은 무사하시고 낙산사 창건 시원인 흥련암 법당은 관세음보살님 가피로 온전하게 보존되어 상주 낙산사 대웅은 24시간 참회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역경계는 희망의 싹입니다. 더 큰 발원의 계기이며 심기일전 환희심의 불도량을 가꿀 수 있는 선물이었음을 채찍질하며 저희 낙산사 상주 대웅은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참회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도량이며 모든 불자의 기도처로 거듭 날 것을 일체지불보살님께 발원하며 고통을 나누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회(懺火)의 모든 업보 종도와 국민여러분에게 사죄 올리면서 도량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아뢰입니다.

불기 2549년 4월

대한불교 조계종 관세음상주도량 양양 낙산사 주지 정 념 합장